

사카구치 레이코(坂口禰子) 소설에서의 여성 서사와 황민화 기획의 균열

신민영**

「정씨 일가」(鄭一家, 1941)를 중심으로*

초록 본고는 3대에 걸친 황민화 기획을 주 서사로 하는 사카구치 레이코의 소설 「정씨 일가」를 식민지 권력 담론과 성 정치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서사적 균열의 기록으로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비논리적 도약과 서사의 잉여들에 집중하며, 제국의 황민화 기획이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과 충돌하며 일으키는 파열음을 보이하고자 하였다.

정씨 일가의 세 여성인 위, 사요, 추이샤의 이야기는 남성 3대가 구축하려 했던 견고한 황민화 서사에 불편하게 끼어들어 균열을 일으킨다. 위는 상징적 세계관을 고수하며 제국의 진보적·선형적 시간관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녀의 애도는 제국이 규정한 전근대적 미신으로 치부돼 부정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잉여의 공간이야말로 제국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대만의 고유한 내면적 영토가 된다. 한편 수홍의 일본인 아내 사요는 우울과 침묵을 통한 존재의 공동화와 소외를 보여준다. 그녀의 고립은 이데올로기의 파산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반면 추이샤는 사적 영역의 고수와 재생산의 거부를 통해 제국 서사의 완성을 유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녀의 보신주의와 안도는 제국이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카구치 레이코의 텍스트에서 포착되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침묵은 작가의 의도적인 저항이라기보다, 제국 가부장제라는 기획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불완전성을 노출하는 지점들이다. 남성들의 서사가 팽팽일우라는 추상적인 대의를 향해 일괄 수렴될 때, 여성들의 서사는 그 틈새에 덧붙여진 나머지로 남음으로써 제국 서사의 완결성을 방해하고 그 기만성을 폭로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주제어 사카구치 레이코, 「정씨 일가」, 서사적 잉여, 여성 서사, 황민화 기획, 서사적 균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8815).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1. 서론

사카구치 레이코(坂口禰子, 1914-2007)는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니시카와 미쓰루(西川滿), 니가키 고이치(新垣宏一, 1913~2002) 등의 만생(灣生)¹ 작가들과는 달리, 이미 성인이었던 1938년에 처음 대만으로 건너왔다. 그로부터 대략 2년 정도 지난 1940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1943년에는 징집명령이 떨어진 후에 일본인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 「등」(燈)이 제1회 대만문화상(臺灣文化賞)² 대만문학 장려상(臺灣文學獎勵賞)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녀의 창작 생애에서 ‘대만’이라는 역사적 시공간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사카구치 레이코는 대만에서의 경험, 대만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 그네들의 실제 삶을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로 삼았다. 대만문학 연구자인 오가사와라 준(小笠原 淳)의 「사카구치 레이코의 대만 번지소설과 그 계보」(坂口禰子の台灣蕃地小説とその系譜)에 따르면, 사카구치는 1946년 3월 대만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대만 원주민의 이야기를 중심 서사로 하는 ‘번지소설(蕃地小説)’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 소설 속 인물이나 주요 플롯은 그녀가 1945년 5월부터 대략 10개월간 머물렀던 ‘번지(蕃地)’ 나카하라(中原)³에서 직접 만나 교류했던 인물들이 실제 겪은 이야기, 혹은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정씨 일가」(鄭一家) 역시 1938년 그녀가 대만 북두심

1 대만에서 태어난 일본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2 황민화운동 추진을 위해 성립된 관방단체인 ‘황민봉공회(皇民奉公會)’는 문인들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1943년 2월 6일 ‘대만문화상’을 제정·발표했다. 재대(在臺) 일본인 작가 니시카와 미쓰루(西川滿)의 「적감기(赤炭記)」, 하마다 하야오(濱田集雄)의 「남방이민촌(南方移民村)」, 대만인 작가 장원환(張文環)의 「밤 원숭이(夜猿)」가 제1회 대만문화상 대만문학 본상을 수상했다.

3 무사사건 이후 일제에 협력적이었던 원주민 부족 이주 부락, 지금의 仁愛鄉 互助村 일대이다.

상소학(北斗尋常小學)에서 교사로 있을 때 하숙했던 천씨 가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사카구치 레이코는 1938년 4월 타이중(台中)의 북두군(北斗郡) 북두심상소학에서 1학년생을 가르쳤다. 거기에서 가르쳤던 천칭즈(陳澄子)가 북두정(北斗町) 전 가장(街長)⁴의 손녀였던 인연으로 천씨 집안에서 하숙을 하게 됐다. 거기에서 사카구치는 “천씨 집에 걸려 있는 ‘국어가정’이라는 문패나, 대만식 무덤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세워진 전 가장(街長)의 일본식 무덤 등을 보고 강한 이질감을 느꼈던 듯하다. [...] 1941년에 발표한 「정씨 일가」는 당시의 체험과 감정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표현한 작품”⁵이다. 오가사와라 준은 「정씨 일가」의 기반 경험이 되는, 소위 ‘황민화 모범가정’이었던 천씨 집안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그녀에게 황민화정책에 대한 회의와 비판적 시각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식민모국 출신의 작가가 전쟁 총동원 체제하에 발동되었던 황민화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대신, 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대만인 가정이 지닌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옴김으로써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정씨 일가」가 발표됐던 당시에도 확인된다. 양쿠이(楊達)는 『대만문학』(臺灣文學)에 실린 「대만문학문답」(臺灣文學問答)에서 “비록 작품에 대해 여전히 아주 약간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정씨 일가」를 이 정도로 철저하게 써낸 섬세한 사카구치 레이코의 의지와 성실함에 깊이 감탄한다”⁶라고 밝혔다. 양쿠이는 사카구치의 작품이 사실주의 기법에 충실하다는 점을 높이 샀다. 그는 사카구치가 그저 식민종주국 출신이라는 정체성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이 보고 느끼고 실제 경험한 현실을 집

4 일제시기 행정구역 단위 체계를 보면 갑(甲)-보(保)-장(庄)-가(街)였다. 대략 현재 한국의 행정구역체제에서 보면 동장(洞長)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이라고 하면 보통 家長을 연상하기 쉬워서, 반복되지만 매번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것이다.

5 小笠原 淳(2015. 09.), 「坂口禰子の台湾蕃地小説とその系譜- 戦中と戦後を通して」, 『日本台湾学会報』第17号, p. 167.

6 楊達(1942), 「臺灣文學問答」, 『臺灣文學』2. 3, p. 165.

요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나카지마 토시오(中島利郎)의 이해 역시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그는 사카구치가 일본 식민지 시기 대만에서 활동한 일본인 작가들 중에서도 ‘특이한’ 존재였다고 밝히면서, 그녀의 ‘특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 번째는 대만에서는 극히 드문 ‘여성’ 작가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식민지 대만에서 지내면서 편견 없이 아주 순수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창작할 때도 내지 일본인이든, 대만 본도인이든, 대만 원주민이든 간에 동일하게 자신과 (그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지배자의 시선으로 본도인과 원주민을 바라보지 않았다.”⁷

그러나 타케히사 야스타카(武久康高)는 이러한 평가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사카구치의 작품에서 식민 당국의 황민화정책을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꿔버리는 서술방식이 오히려 식민 지배의 실태, 식민 통치하의 수많은 차별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씨 일가」의 수홍(樹虹)이 아버지 차오(朝)의 장례를 온전히 내지식으로 치르지 못한 것을 내심 아쉬워하다가 “내가 네 할아버지 장례를 내지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거나 대만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도, 의외로 별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삼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전체를 생각해 보더라도, 북 끝에서 남 끝까지 똑같은 풍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대만은 대만 나름의 풍습을 지니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⁸라고 하는 말에, 주이치로(樹一郎)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아버

7 中島利郎(2008), 「坂口禰子作品解説」, 『日本統治期日本人作家作品集』第5巻, 綠蔭書房, p. 557, 괄호 인용자.

8 坂口禰子(2008), 「鄭一家」, 中島利郎 編, 『日本統治期日本人作家作品集』第5巻, 綠蔭書房, p. 56, 이하 수만 제시; 앞부분 “お父さんが、お祖父さん”은 의역했음.; 작품집에 실린 작품은 영인본으로 수록하기 위해 번호, 테두리 선 등 형식상의 변형을 제외하고 『臺灣時報』에 실린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대만시보』에 처음 발표된 이후, 1943년 청수서점(淸水書店)에서 「鄭一家」, 「春秋」, 「微涼」, 「黑土」, 「時計草」, 「灯」 여섯 편을 묶어 단편 소설집 『鄭一家』를 출판했다.

지. 일본이란 민족은 뭐든 금세 소화해서 일본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문화든 유럽의 문명이든 죄다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삼켜 버린 다음엔 마치 이런 이질적인 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죠. [...] 다른 곳의 것들은 전부 양분으로 삼을 뿐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무서운 민족이에요. 강인한 정신력이죠.”⁹라고 하는 대목에서 대만(인)과 일본(인) 사이의 간극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서사화 전략에 대해 타케히사는 “바뀌 말하면, 이는 곧 일본인이 대만인을 이끌고 상승시키는 연결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넓은 팔굉일우(八紘一宇) 정신’ 아래 일본화된 대만이라는 담론이다.”¹⁰라고 비판한다.

한편 린후이권(林慧君)은 사카구치가 최대한 당사자의 입장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면서, 소설 속 인물들의 왜곡된 모습과 거기서 느끼는 내적 갈등을 심도 있게 그렸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전시 체제에서 인물들이 진정한 ‘일본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계보이든 내대통혼(內台通婚)이든 결국 식민정책하에서 지배자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문제의 핵심을 다뤄야 할 때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실현될 수도 없는 ‘일본의 관대한 팔굉일우 정신’에 기대어 바랄 뿐이라고 지적한다.¹¹ 또한 그는 「식민제국 여성의 눈(殖民帝國女性之眼)」에서 사카구치 레이코가 여성 시점을 활용해 황민화 과정에서 느끼는 대만 여성의 불안과 고뇌를 주의 깊게 묘사했다고 보았다. 특히 피식민자 남성에 비해 ‘봉건적 가부장제’라는 굴레를 하나 더 짊어진 채 자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피식민자 여성의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린후이권은 수홍의 두 번째

9 p. 57, 괄호 인용자.

10 武久康高(2008. 06.), 「超越尺度的方法: 皇民文學與坂口禰子の〈杜秋泉〉, 〈鄭一家〉」, 吳佩珍 譯, 『台灣文學學報』第12期, p. 42.

11 林慧君(2006. 06.), 「坂口禰子小說人物的身分認同: 以〈鄭一家〉, 〈時計草〉為中心」, 『台灣文學學報』第8期, p. 144.

부인인 추이샤(翠霞)가 수홍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어도 아이를 갖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그녀는 “모성에 대한 인식을 말살함으로써 3대로 이어지는 정씨 집안의 황민연성(皇民鍊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추이샤의 총명하고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주변화된 추이샤가 구축한 생존 공간이며, 여성 생존 공간의 이중 억압을 드러낸다. 순수한 대만 혈통을 지닌 3세대(三代)의 ‘부재’는 지배자의 순혈주의적 사고가 지닌 배타성을 나타낸다.”¹²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서, 추이샤는 아이를 낳지 않고 수홍과 ‘일본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네 명의 아이들을 키움으로써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동시에, 수홍과 자신 사이의 순수한 대만인 혈통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일본 제국의 황민연성에 일조하도록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텍스트의 정치적 타협성과 피식민 여성의 이중 억압을 날카롭게 포착해 냈으나, 여전히 작가의 의식적 한계나 이데올로기적 수렴 여부를 중심으로 작품을 평가해 왔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최근 한국 학계에서 일제 말기 전시 총력전 담론과 황민화 기획이 주체의 내면에 남긴 균열과 정체성의 이질적 혼재를 다층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해 온 흐름과도 일정한 거리가 있다. 한국 학계에서의 식민지 대만 황민화시기에 대한 연구는 제국의 압도적인 동화 정책과 그 담론의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피식민 주체의 내적 균열 및 다층적 대응 양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선 최말순은 제국의 총력전 체제 및 황민화 통치 이데올로기 아래 놓인 대만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법률과 자본이라는 근대적 권력관계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저항 양태와 탈식민적 전망을 도출했다.¹³ 이어 김옥은 전시하 대만인 작가들의 일본어 소설 천취취안(陳火

12 林慧君(2007. 03.), 「殖民帝國女性之眼: 論坂口櫻子小說中的台灣女性形象」, 『中外文學』 第36卷 第1期, p. 166, 발호 인용자.

13 최말순(2024), 「強權과 黃金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대만근대소설 속의 저항과 탈식민적 전망」, 『대만연구』 제24호, 한국의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泉)의 「길」(道)과 왕창승(王昶雄)의 「격류」(奔流)를 중심으로 황민이 되려는 여정 속에 은폐된 차별과 배제의 폭력성을 분석하며, 피식민자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공간 자체가 이미 억압을 내면화시키는 장(場)이었음을 포착해냈다.¹⁴ 이러한 문학 연구의 성과는 역사학적 관점을 취한 손준식·이성찬의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해당 논문은 당대 대만인들이 남긴 구체적인 일기와 서사를 바탕으로, 황민화 운동 시기 구세대, 을미 신세대, 전쟁세대가 각각 마주했던 정체성의 복잡한 편차와 이등 국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내밀한 욕망의 추이를 실증했다.¹⁵ 이처럼 일제의 강제 동화 기획이 지닌 균열과 피식민 주체의 파편화된 내면을 추적해 온 기존의 성과들은 본고가 시도하고자 하는 서사의 잉여와 가부장적 생명정치하의 징후적(symptomatic) 공백을 읽어내는 작업에 탄탄한 비평적 디딤돌을 제공한다.

특히 본고는 사카구치 작품에 대해 ① 민족적 편견 없이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삶을 등거리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황민화’를 개인의 자발적인 결심과 선택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순혈주의를 넘어 또 다른 황민화 논리(八紘一字)에로 수렴시킨다는 상반된 선행연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지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카구치가 식민모국 출신의 작가이며 동시에 ‘여성’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1940년대 일제가 태평양으로 전장을 확장해가면서, 일제의 가부장적 국가주의도 최고조에 달했다. 제국의 가부장적 권력 질서를 강화하고 지지하기 위해, 여성은 이전보다 더욱 강도 높게 가정 안에서의 존재로 고정되었다. 남성이 ‘바깥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 집안을 전담하는 역할로서 독려되었을뿐더러 절대적으로 미화되었다.

사카구치는 일제 관방의 대의에 대체로 순응하며 협조적인 기초를 유

14 김옥(2026), 「‘황민’(皇民)으로의 길에 놓인 억압된 타자들: 전지하 대만인 일본어소설 「길」(道)과 「격류」(奔流)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34호.

15 손준식·이성찬(2024), 「일기를 통해 본 일제 식민지시기 ‘대만의식’의 생성과 변화」, 『역사학연구』 제63집, 중앙대학교 역사연구소.

지했지만, 남성 중심의 국가권력이 그 공고화를 위해 강제하는 성 역할과 강요된 침묵에 대한 복잡한 속내를 ‘단단히’ 숨기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실패가 작가의 명확한 인식과 의지 아래 계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억눌림’에 대한 사카구치의 민감함이 유기적이고 자기동일적인 매끄러운 서사를 구축할 수 없게 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즉 고통과 억압에 대한 예민한 촉수가 ‘군더더기들’을 서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의도치 않게 이야기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뜬금없이 옆으로 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본고는 사카구치 서사의 ‘잉여’들에 자리를 마련하면서, 그것이 서사의 완결성을 방해함으로써 생성하는 의미를 읽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941년에 발표된 사카구치 레이코의 첫 번째 소설 「정씨 일가」를 세독할 것이다.

2. 본론

「정씨 일가」는 1941년 『대만시보』(臺灣時報) 9월호¹⁶에 처음 발표되었다. 『대만시보』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대만총독부가 발행한 총독부 기관지에 해당하는데, 작품이 발표된 공간을 통해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듯이 「정씨 일가」는 일제의 국책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씨 일가」는 총 15개¹⁷의 장으로 구성된 중편 분량의 작품으로, E가의 가장(街長)이었던 정차오(鄭朝)의 길고 요란한 대만식 장례 행렬을 묘사하며 시작된다. 작품은 1장과 할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떠나는 주이치로(樹一郎)에 대해 전하는 14, 15장을 제외하면, 차오의 장례를 대만식으로 진행하게 된 긴 우여곡절을 담고 있다. 현재(겉이야기)에서 지금에 이르게 된 연유를 속이야기

16 『臺灣時報』 九月号, 1941. 09. 01., pp.96-146.

17 마지막 번호는 ‘十五’이지만, ‘八’이라고 붙은 장이 2개여서 전체는 총 16장인 것으로 보인다.

로 삼는 액자구조를 취하면서, 소설은 차오의 아버지인 정우통(鄭梧桐)의 내력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청조 말기 대륙의 사면(廈門)을 오가며 해상무역으로 부를 일궈낸 비범한 인물로서 소개된다. 항해 도중 극심한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마조(媽祖)에게 서원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일화가 그의 영웅적 기개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다. 언뜻 보면, 정차오(鄭朝), 정수홍(鄭樹虹), 주이치로(鄭樹一郎) 3대로 이어지는 황민연성이라는 「정씨 일가」의 핵심 서사에서 정우통의 존재는 별다른 역할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우통의 존재는 ‘황민화’라는 강제 동화 정책의 시류에 당시 사카구치가 어떻게 호응했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우통이 정씨이며, 대륙에 연고를 가진 해상 무역상이라는 특이점이 환기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정씨’, ‘대륙 연고’, ‘해상 무역상’이라는 세 요소의 결합은 반청복명(反淸復明)을 기치로 대만섬에 최초의 한족 정권을 세운 정청공(鄭成功)을 떠올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씨 가문의 3대에 걸친 ‘황민 되기’ 서사는 특정한 어느 가문의 일이 아니게 된다. 사카구치는 ‘정씨 집안’을 대만 한족(漢族)의 대유적 표현으로 선택한 것이다.

한편 정씨 집안에는 정씨 3대뿐만 아니라, 성씨는 다르지만 각각 정씨 가문으로 시집온 여성들의 3대가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차오의 아내 장위(江玉), 정수홍의 일본인 아내 사요(小夜), 그리고 정수홍의 두 번째 아내 저우추이사(周翠霞)로 이어지는 3대가 그것이다. 이 여성들은 황민화에 극성인 남편들의 영향권 안에 위치하지만, 무력하게 장악된 존재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남편들의 목적론적 서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들의 서사는 뚜렷한 명분이나 명확한 인과 없이 ‘느슨하게’ 펼쳐져 있다. 하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남편들의 거대서사와 경쟁하며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국가 중심의 남성 서사에 종속된 듯 보이지만, 그 논리와 질서 자체를 벗어난 방식으로 존재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힘을 발휘한다.

2.1. 정차오의 아내: 위(玉)의 애도와 대만식 장례

위(玉)는 차오의 유언대로 모든 장례 절차를 일본 내지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아들과 대립하며, 남편의 장례를 대만 본토식으로 치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녀가 수홍에게 대만인이라면 왜 마땅히 대만식 장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설득하거나 수홍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며 맞서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거나 눈물을 쏟는 바람에 말을 미처 다 맺지 못하면서 수홍의 합리와 명분으로 무장한 강경한 입장에 대응한다. 이를 위(玉)가 논쟁을 할 줄 모른다거나 장성한 아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어머니가 으레 꺼내드는 ‘교활한’ 수단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애초 위(玉)와 수홍의 갈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차오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냐는 문제에서 발생했다.

“상을 치르는 일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아버님의 유언은, 상을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의 3분의 1은 국방헌금으로, 3분의 1은 구제사업에 쓰고, 나머지 3분의 1로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그런 의례는 생략하고, 가능하다면 모레쯤이라도 고별식을 치러서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홍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는 E가(街) 정씨 집안의 전당주를, 염도 치르지 않은 채 갑자기 묘지로 데려가도 괜찮다는 말이냐. 네가 불효의 본보기로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다는 거냐. 나는 네가 그렇게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이라서, 백일 제령까지는 관을 모시겠다고 말할 줄 알았다. 주 선생님, 들으셨죠. 수홍의 이 불효막심한 말을…….”¹⁸

수홍은 황민화의 선각자로 불렸던 차오의 유언대로 내지식 장례로 치

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례는 고인의 삶의 증지부이므로, 내지식 장례야말로 평생 황민화에 헌신한 차오의 뜻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홍에게 대만식 장례는 차오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정반대인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정씨 가문이 황민화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이 치료에게서도 비슷하게 짐작된다. 일본에서 귀국한 그는 할아버지의 장례가 대만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아무 말 없이 냉랭하게 할머니를 응시하는가 하면, 사정을 따져 물을 작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

반면 위(玉)에게는 차오의 영혼이 이승을 떠돌지 않고 무사히 저승으로 잘 가도록 해주는 게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玉)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차오의 죽음은 여기에서의 삶의 멈춤인 동시에, 저곳에서의 삶의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온갖 금기는 비과학적인 황당한 미신이나 한몫 잡으려는 도사들의 속임수가 아니라, 차오를 잘 보내기 위한 절차이다. 게다가 차오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는 곧 자신의 장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녀가 절박하게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玉)의 세계관에서 삶과 죽음은 단절이나 끝이 아니라, 이곳과 저곳의 경계로 맞닿아 있다. 따라서 그 마디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절차와 방식은 통과와 성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위(玉)는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한다. 빈렴(殯殮)도 하지 않고 화장을 해버린 탓에 차오가 ‘화귀(火鬼)가 되었다거나 집 밖에서 죽게 되면 문신(門神)에 가로막혀 혼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등의 믿음은 죽음이란 ‘없음’이나 종결이 아니라, 없음의 상태로 존재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대적인 사고 체계에 미치지 못한 비문명적이고 전근대적인 미신 숭배 정도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

위(玉)의 이해 속에서 시간은 선형으로 흐르지 않는다. 곧 그녀에게 과거는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현재와 분리되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 현재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기는 상호개입적이고 순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玉)는 산 자들의 삶에 끼어 간섭하는 죽은 자들, 자기 행위의 결과를 끌어안고 존재를 계속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玉)의 세계에서는 현재만이 극단적으로 정당화되거나 과대평가되지 않으며, 과학적인 증거가 설명하지 못하는 비가시의 영역이 일방적으로 삭제되거나 거부되지 않는다. 그녀의 현재는 과거 '나'의 행위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여러 사람들의 행위와 이어져 있으며, 그것은 시시각각 과거로 변하면서 앞으로를 결정한다. 또한 위(玉)에게서 세계는 감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제한된 '지금' '여기'와, 미지이지만 강력하게 존재하는 가시세계 너머를 함께 아우른다. 그러나 단절과 확장을 통한 발전을 표방하는 제국에서 위(玉)의 세계관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미몽과 무지로 분류돼 부정되고, 교육·교화의 대상으로 재범주화된다. 과학·합리·문명화의 근대적 세계관은 다른 방식의 애도와 공존하지 못하면서 위(玉)의 애도를 방해하고 저지한다.

소설은 독립된 두 개의 장을 할애하여 가장 보편적인 대만 민간의 토착 신앙- 유응공(有應公)과 토지공(土地公) 숭배의 유래를 읊는다. 하지만 5장과 11장의 내용은 서술자의 흥미에 기대어 정보를 제공하듯 그치면서, 오히려 「정씨 일가」의 일관된 서사 흐름을 흐트러뜨린다. 바꿔 말해, 사건 전개에 필연적 고리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플롯의 긴밀한 유기적 연결을 약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주체와 발화방식이 전혀 상이하게 재현되는 두 장은 어떤 서사적 효과- 곧 세계관의 충돌을 가시화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먼저 '유응공'은 차오를 타이베이에서 치료하고 싶어 하는 수홍과 위(玉)의 대화에서 등장한다. 위(玉)가 '이곳'의 마조묘(媽祖廟)와 유응공사(有應公祠)에서 드리는 기도가 '타이베이'에 있는 차오에게는 효험이 없을 까 봐 염려하자, 수홍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일본에서 근대 학문을 배웠고 현재 대만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로서는 이런 류의 '터무니없는' 신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자의 대화를 끝으로, 소설의 5장 전체는 「대만종교와 미신적 누습(甞정라이 저)」 발췌, 유응공 숭

배(87쪽)[臺灣宗教と迷信陋習(曾景來著) 抜粹, 有應公崇拜(八十七頁)]¹⁹라는 제하에 길게 책의 내용을 인용한다. 쟁쟁라이의 이 책은 1939년 대만종교연구회(臺灣宗教硏究會)에서 실제 출판된 저서이며, 유응공 숭배의 기원과 그 사회적 기능, 현황 등의 민속지학적 연구를 담고 있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표현—“미신의 한 형태”, “민간문화 발전의 큰 장애”, “대만총독부 통치 이후 사회 풍속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신앙도 점차 감소되었으며,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은 유응공 숭배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근대 지식 체계 안에서 대만의 유응공 신앙은 학문적·자료적 가치로 환원되고 대상화되었으며, 대만총독부는 그것을 단속과 금지의 영역으로 분류했다.

반면 11장에서 위(玉)가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속의 ‘토지공’은 사뭇 다르다. 민속지학 연구가 기록한 유응공 신앙은 사회적 기능이 이미 완료된 연구·기록의 대상으로 소용된 데 반해, 위(玉)가 전하는 토지공은 “지금도 무덤을 지키게 하려고 묘지에 돌로 된 표식²⁰으로 세워진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위(玉)가 토지공의 유래를 맹강녀(孟姜女) 설화에 결합한다는 점이다. 맹강녀 설화는 한 여성의 지조와 절개에 대한 민간의 이야기이다. 맹강녀는 결혼한 지 사흘 만에 만리장성 공사에 강제 동원된 남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가지만, 남편이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맹강녀가 며칠 밤낮을 통곡하자 만리장성 담벼락 일부가 무너졌는데, 그동안 공사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뼈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맹강녀는 그중에서 남편의 뼈를 수습하고 황제에게 찾아가 간청했다. 맹강녀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마침내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맹강녀 설화의 시간적 배경이 진시황의 만리장성 축조 시기로 특정된 것은 후대에 와서라는 게 정설이며, 이야기의 판본마다 남편의 이름과 이야기의

19 「臺灣宗教と迷信陋習(曾景來著) 抜粹, 有應公崇拜(八十七頁)」; 『臺灣宗教と迷信陋習』는 실존하는 책으로 1939년 에서 출판했다.

20 「鄭一家」, p. 48.

상세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맹강녀 설화의 주된 열개는 고생 끝에 결국 아내가 죽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 강제노역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한다는 것은 권력의 폭정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었다. 그래서 맹강녀는 황제에게 읍소하여 겨우 허락을 받아내야 했다. 이 맹강녀의 이야기는 차오의 장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위(玉)의 상황과 묘하게 겹친다.

한편 위(玉)의 맹강녀 설화에는 맹강녀가 한 노인을 붙잡아 남편의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가 삽입되는데, 그가 바로 토지공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공 신앙의 초기 기원은 땅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대지에 제사를 지냈던 데서 찾는다. 이러한 의식이 점차 토지의 신을 제사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 토지공 숭배이다. 대만의 민간신앙에서 토지공은 단순히 땅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곡의 풍작, 장사의 번창, 가정의 평안 등 토지공이 관장하는 영역은 꽤나 광범위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신앙에서 토지공은 복덕정신(福德正神)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토지공 신앙이 위(玉)의 이야기 속에서는 죽은 남편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로서 강조된다.

위(玉)가 이렇게 별개의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남편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맹강녀의 의지와 토지공을 붙잡아 와서라도 남편의 무덤을 살뜰히 보살피고 싶은 그녀의 바람이 성취되는 이 이야기는 곧 위(玉)의 소망이 투영된 장(場)이다. 소설에서 위(玉)의 토지공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수홍을 설득한 끝에 내린 타협안에 뒤이어 등장하는데, 수홍은 모든 장례 절차는 대만식을 따르되 무덤은 내지식으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니까 대만식과 내지식의 절충안에 따라, 정차오의 무덤에는 토지공이 세워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玉)는 “묘지 한구석에 돌로 된 표식이 서 있는 거 알고 있지? … 그건 말이야. ‘후토’(后土)라고 해서, 토지공이야. 그래, 묘를 지켜주시는 분이죠.”²¹라는 말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시 맞서지 않지만, 남편의 무덤에 토지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위(玉)는 손녀들에게 토지공의 유래를 전함으로써 남편의 무덤에 무형의 토지공을 세운다. 물리적 상(像)을 세우는 대신, 토지공이 무덤을 지키는 존재라는 유래를 전하는 행위를 통해 상실을 의미화하고 애도를 지속하는 상징적 제의를 수행한다. 여기에서 위(玉)의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민담이 아니라, 그녀만의 우회적인 대만식 장례이다. 그러므로 기어코 남편의 장례를 치러내고 ‘꽤 씩한’ 노인을 붙잡아다가 남편의 무덤을 지키도록 한 맹강녀는 위(玉)의 자화상으로서 읽힌다.

「정씨 일가」는 정씨 삼대의 황민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차오에 대한 서술자의 시선이 특별히 차갑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황민화에 대한 그의 열정은 종종 우스꽝스럽게 그려진다. 정차오가 일본인 ‘처럼’ 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반면, 정수홍은 스스로 ‘일본인’과 ‘대만인’이라는 경계를 특별히 의식하지 못할 정도라고 자신한다. 주이치로는 확고하게 일본인 정체성에 속해 있다. 정차오의 장례를 어떤 형식으로 치를 것인지를 두고 벌인 갈등은 결국 황민화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깨달음’으로 종결되는 주 서사의 흐름에서, 대만 민간의 토착신앙은 별달리 설 자리가 없다. 유응공과 토지공 숭배의 유래는 서사의 잉여로 도드라져 있다. 다시 말해서, 5장과 11장은 서사적 설명이나 인물의 인식 전환을 거치지 않은 채 소설의 흐름을 단절하며 삽입되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장은 불필요하게 추가되어 서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위(玉)가 남편의 죽음을 그녀의 방식대로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하지만 이것이 작가가 계획한 실패라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사카구치는 대만식 장례를 고집하는 위(玉)를 비롯한 E가(街)의 대만 민중이 기대고 있는 민간신앙을 구전·전승된 설화의 형태로 그 의미를 축소해 보이려는 데 더 의도가 있었다. 사카구치가 대만 민간의 토착신앙이나 대만식

장례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1장에서 확인되는 추이샤의 내면 서술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추측할 수 있다.

젊은 인텔리인 추이샤는, 이제 슬슬 이 모든 게 어처구니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과장된 장례식이, 과연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지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능숙하게 곡만 해대는 이 일행의 짓이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²²

유교 예법에서 비롯된 이 풍속은 도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더해졌으며, 평범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 음양가(陰陽家)와 풍수사(地理師)의 영향으로 인해 특수한 세속적 형식으로 변질되어 정식 예법과는 한참 동떨어진 상태로 이어지고 있었다.²³

이처럼 사카구치는 대만식 장례 예법이나 민간신앙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에서 바라봤다. 그런데 유웅공과 토지공의 이야기가 작가의 창작 의도를 벗어나 예상하지 못한 서사적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5장과 11장- 이 두 개의 장은 작가가 작품 안에서 서사화하려고 계획했던 의미를 벗어나 ‘오류’를 일으키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것은 위(玉)의 바람을 서사 안에서 실현해 준다.

2.2. 정수홍의 일본인 아내: 사요의 침묵과 우울

정차오의 아내 장위가 여성 삼대 중 1세대에 해당한다면, 그녀의 며느리 사요는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사요에 대한 정보는 매우 단편

22 「鄭一家」, p. 11.

23 「鄭一家」, p. 12.

적이며, 그나마도 다른 이들의 기억에 의존한 서술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일본인 여성인 사요의 존재는 부차적이고 희미하게 처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정씨 삼대의 황민 되기 서사에서 사요의 역할과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요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수홍을 따라 대만으로 왔다. 작품에서 그녀가 직접 등장하는 장면은 단 한 번뿐이다. 수홍을 마중 나온 차오와 처음 마주하게 되는 때인데, 그녀의 등장에 당황스러워하는 차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인사하는 것이 다이다. 이를 제외하고, 그녀는 단지 가족 중 누군가의 회상을 통해 재현된다. 하지만 사요는 존재 자체로 이미 정씨 일가의 황민화 서사에서 매우 강력하다. 차오는 모든 생활방식을 내지식으로 바꾸고, 집안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며 황민 되기를 향한 자신의 열망과 노력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고군분투한다. 그가 수홍을 어릴 때부터 일본에 보내 교육시킨 것도 “스스로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도 같은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한편 오랫동안 일본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수홍은 사요와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이 내지인과 본도인이라는 구분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호언한다. 그러나 정작 그가 본도 풍습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을 받으며 무심코 떠올린 것은 일본인 아내 사요였다. 차오의 뒤를 이어 가장(街長)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하는 수홍으로서 본도인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지인의 마음을 놓쳐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사요가 내 아내라는 사실만으로도 내지인들의 마음을 붙잡아둘 수 있지 않았을까”²⁴ 하고 생각한다. 수홍은 자신의 딸과 달리 아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홍과 사요 사이에서 태어난 주이치로와 타마코(球子)는 황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씨 집안 사람

24 「鄭一家」, pp. 42-43.

들과 자신들을 구분한다.

“왜 그런 것을 한 거니?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야?”

“아니. 말씀하셨대. 모든 것을 내지식으로 하라고, 신신당부하며 유언을 남기셨대.”

“아버지는 대체 어떤 생각이신 거지?”

“아버지도 무척 곤란해하셨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는걸. 오빠도 더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어.”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결국 정씨 일가 사람일 뿐인걸.”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자포자기한 듯이 말하지 마.”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유언까지 남기셨는데도, 결국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잖아.”

“그만둬. 우리는 달라. 적어도 우리만큼은 다르단 말이야.”²⁵

수홍 역시 주이치로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공부했고, 일본인 아내를 얻었으며 심지어 대만총독부에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도인과 내지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이에 반해 주이치로와 타마코는 정씨 집안 사람으로 한테 묶이는 것을 거부한다. 사실 통상적인 황민화의 객관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즉 일어 사용 능력,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나 친숙함 등으로 판단할 때, 수홍과 이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주이치로와 타마코가 가진 일본인으로서의 이 확고한 정체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신들의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마코는 좁은 계모

— www.kci.go.kr

25 「鄭一家」, pp. 48-49.

의 존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몸 안에 흐르는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를 언급한다. 그녀는 이질적인 두 종류의 피가 한데 섞이지 않고 평행하게 흐르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여기에서 그녀의 발언은 한 인간의 탄생을 성장배경이나 성격이 다른 개인들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통상적인 의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본도인과 내지인이라는 민족적 이질성으로 확대된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사요는 줄곧 ‘일본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씨 집안 사람들로부터 일본인 아내, 일본인 며느리, 일본인 어머니로서 호명된다.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이치로와 타마코의 몸속에 흐르는 일본인 피가 그들의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증해준다는 사실이야말로 황민화정책의 기만을 폭로한다는 점이다. 소설 말미에서 수홍과 주이치로는 혈통이나 문화가 어떻든 간에 팔굉일우의 정신 아래 모두가 황민이 될 수 있다는 공허한 결론으로 각자의 갈등과 번뇌를 봉합한다. 그러나 차오와 수홍은 황민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쏟아부은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본도와 내지라는 구분으로 회귀한다. 반면 주이치로와 타마코는 내지식으로의 전면적이고 일관된 전환을 주장하며, 이를 추진하는 데 망설임이 없다. 이들이 자기동일적인 정체성을 확신하며 자아가 비대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차오는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위(玉)와 대만어로 이야기할 때 “그가 내지화되었다고 믿고 있는 자신의 생활 태도나 언어에 대한 궁지가 상처 입게 되는 불쾌함을 느끼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오히려 온화한 휴식을 느끼는 것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향에 당도한 에트랑제(étrangère)의 편안함을 느끼며,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포즈가 무너지고 안도의 표정이 되는 것이었다.”²⁶ 그런가 하면 수홍은 차오의 장례를 기어코 내지식으로 치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본도식 장례 절차에 따라 시끄럽게 연주가 시작되고 음악소리 사이로 여자의 흐느끼는

26 「鄭一家」, p. 15.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자 처음으로 깊은 슬픔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²⁷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제국의 황민화 기획이 지닌 구조적 양가성이다. 이는 제국의 황민화 기획이 요구하는 ‘내지인 닮아가기’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식민지적 정체성의 내재적 한계이자, 동화와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곧 차이의 표상화이다. “효과적이기 위해, 모방은 끊임없이 그 미끄러짐·초과·차이를 생산해야 한다.”²⁸ 그러므로 차오와 수홍의 황민화(황민 되기)는 그들이 ‘황민’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모방은 미세하게 드러나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눈에 띄는’ 특징이며, ‘부분적인’ 닮음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이치로와 다마코는 절반은 정씨 혈통을 타고난 본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요로부터 물려받은 일본인의 혈통을 통해 이를 가뿐히 부정하고 넘어선다. 그들은 더 이상 모방하지 않으며, 황민의 자리에서 나르시시즘적 동일화를 수행한다.

사요는 정씨 집안의 황민 ‘탄생’을 위해 ‘아내’와 ‘며느리’, ‘어머니’로서 정씨 집안에 흡수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열을 올리던 때에 정작 야마토(大和) 순수 혈통의 사요는 황민·국민의 자리에서 명시적인 자리를 얻지 못한다. 언어와 생활습관, 성씨를 바꿔서라도 황민이 되는 일은 남성의 서사로 제한되고, 일본인 ‘여성’ 사요는 가정을 매개로 하는 성 역할로서 평면화된다. 당시 일본은 수행 중인 전쟁을 위해 식민지에서조차 군사동원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식민지인들을 황민으로 재명명하고 있었다. 소설은 젊은 연인의 연애사로 슬쩍 놓치고 있지만, 실제 일본인 사요와 대만인 수홍의 결혼은 내대통혼이라는 황민화정책에 대응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인 여성 사요는 식민지에서의 황민화 완수라는 제국의 생명정치에 생물학적 자산으로 동원되고 있다.

일본인이라는 그녀의 출신성분이 정씨 집안의 황민 되기 서사의 성공

27 「鄭一家」, p. 41.

28 호미 바바(2002), 나병철 옮김, 「제4장 모방과 인간」,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p. 179.

에 결정적이었지만, 작품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사실상 공백에 가깝다. 수홍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심약”²⁹하다고 기억한다. 위(玉)에게서 사요는 말수가 적고 고요하지만 다정한 며느리이자 딸로서 회상된다. 그녀는 사요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모성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³⁰ 주이치로에게서 그의 어머니 사요는 “늘 조용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낼 때가 많았”고, “항상 맑은 물과 같은, 그러나 차갑지는 않은 공기가 감돌고 있어, [...] 쓸쓸하고 고요”³¹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인상비평 차원에 머무르는 파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하면, 사요는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주이치로의 눈에 비친 사요의 주변으로 맑은 물 같은 공기가 감도는 모습은 사실 그녀가 섬처럼 오롯이 고립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를 사요라는 인물의 개인 성격적 특성으로 간단히 치부해버리기는 곤란하다. 처음 사요를 만난 차오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홍의 뒤에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오는 여자의 태도에는, 이미 결의를 굳히고 그 어떤 장애라도 견뎌내겠다는 보이지 않는 의지의 번득임이 있었다.

[...]

수홍은 곁에 선 여자를 돌아보며 “사요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맑게 갠 듯 새까맣고 커다란 눈이었다. 사요는 그 눈으로 차오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³²

29 「鄭一家」, p. 42.

30 「鄭一家」, p. 23.

31 「鄭一家」, p. 54.

32 「鄭一家」, pp. 18-19.

처음 수홍을 따라 일본에서 대만으로 온 사요의 모습은 당차고 용감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좇아 기꺼이 타국으로의 이주를 감행했으며,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함을 보인다. 차오가 전하는 사요에게서 심약함이나 쓸쓸함, 고요함은 찾아보기 어렵다. 작품은 사요가 실제 정씨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아름다웠고 훌륭했다고 만족해한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정씨 가문에서 십여 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스스로를 윤택하는 듯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요의 변화는, 황민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위계 구조가 존속하는 대만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가부장 질서 아래 강력하게 불박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요의 내지인/일본인 혈통이 정씨 집안의 오랜 숙원을 성사 해주었다고 해도, 그녀가 정씨 집안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순간 식민 지배질서의 위계는 별달리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집안에서 그녀는 식민자/내지인이라는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여성'이자 유일한 '이방인'이 되었다. 작가는 사요를 황민 되기 서사의 과정과 무관한 낭만적인 사랑의 주체로서 지나치듯 처리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정씨 집안의 성공적인 황민 출현에 가장 핵심조건이었다. 게다가 무심하게 전하는 그녀에 대한 짧은 전언은 혈통이나 출신성분을 압도하여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 역할의 굴레를 환기한다. 사요는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서 피상화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침묵에 갇혔다. 위(玉)가 수홍의 황민화 논리에 통곡으로 대응하고 맹강녀 설화와 토지공 유래를 결합한 이야기를 직접 구술함으로써 차오를 위해 자신만의 토지공을 세우는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정씨 집안에서 사요는 고인이기 때문에 부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는 이야기조차 부재한다. 사요 이야기의 공백은 제국 생명정치의 기만을 징후적으로 가시화한다. 제국은 황민화 과정에서 사요의 아마토 순혈이라는 생물학적 자산만을 필요로 했을 뿐, 이주 여성으로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식민지 가부장제 내부의 소

외와 고립에는 침묵했다. 그녀의 혈통은 자녀들의 나르시시즘적 황민 정체성을 보증하는 도구로 찬미됐지만, 그 대가로 정작 사요 본인은 공동화(空洞化)되었다.

2.3. 정수홍의 대만인 아내: 추이샤의 동요와 가정인(家庭人)으로서의 재정립

추이샤는 수홍의 아내이지만 그와는 스무 살 차이가 나서 의붓아들인 주이치로와 또래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차오-수홍-주이치로로 이어지는 남성 3대와 마찬가지로, 위(玉)-사요-추이샤의 여성 3대가 성립된다. 주이치로의 이야기를 빌자면, 추이샤는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도 완벽하게 익히고 있는”³³ 인물이다. 그런 까닭인지 추이샤는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진행되는 본도식의 장례 행렬에서 관찰자의 위치에 서 있다. 그녀는 정차오의 장례 행렬 속에 상제(喪制)로 참여하고 있지만 거창하고 요란한 장례의식이나 능숙하게 곡소리만 내며 뒤따르는 사람들을 볼만 섞인 눈으로 바라본다. 추이샤는 차오의 아내인 위(玉)조차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공허한 형식주의이며 짓누르는 관습의 무게라고 느낀다.

추이샤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추이샤뿐만 아니라, 정씨 가문 사람들 모두가 이미 정차오의 죽음을 과거 장부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빈렴(殮)한 지 49일째인 오늘 호화로운 장례식이 치러진 것이지만, 그 49일의 애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못해 강요당하는 느낌뿐이었고, 오늘의 장례식까지 처음의 생생한 감상을 그대로 간직한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울지 않으면 안 된다. 소리 높여 곡을 해야만 한다.³⁴

33 「鄭一家」, p. 49.

34 「鄭一家」, p. 12.

「정씨 일가」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추이사의 생각은 주이치로나 타마코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본도식의 문화나 관습을 구시대적이고 낡은 인습 정도로 취급하며, 내지화를 통한 황민화를 주장하는 논리에 상당히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황민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대의의 흐름으로 손쉽게 수렴하지 않는다. 추이사의 욕망은 그 흐름에서 이탈하며 다른 곳으로 새어버린다.

추이사는 본도인이지만 정씨 집안에서 위축되고 고립된 처지이기는 사요와 마찬가지로이다. ‘젊은’ ‘계모’라는 추이사의 불안정한 지위는 남편 수홍이나 시어머니 위(玉)와의 사이에서보다 의붓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수홍과 사요 사이에서 태어난 네 명의 아이들 중에서도 비교적 머리가 굵은 주이치로와 타마코를 대하는 것이 어색하고 조심스럽다. 두 아이 모두 학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생활한 탓도 있지만, 수홍과의 스무 살 나이 차이는 역으로 아이들과 추이사의 연령대가 겹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타마코는 추이사의 면전에서 그녀가 골라서 보내준 옷감이 중국풍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한다. 결국 수홍이 그녀의 버릇없는 행동을 나무라자, 아버지를 향한 타마코의 서운함은 엉뚱하게 젊은 계모인 추이사에게로 향한다.

추이사를 향한 타마코의 태도가 적대적이라면, 타마코를 바라보는 추이사의 시선 역시 예사롭지 않다. 그녀는 타마코가 못 본 사이 부쩍 어린티를 벗고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타마코의 작은 변화를 빠짐없이 알아채고 있을 만큼 자신이 타마코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추이사는 사요를 빼닮았다는 타마코를 통해 수홍이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애정을 보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독특하게 작품은 이 대목에서 화자를 전면에 등장시켜 젊은 계모와 의붓딸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성장한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남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느끼게 되

는 일— 타마코의 경우, 그 곁에서 아버지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젊은 계모라는 사실은, 그대로 ‘질투’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타마코도, 추이샤도 알지 못했다.³⁵

그러니까 타마코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머니인 데다가 젊기까지 한 추이샤는 수홍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연적이 됐다는 말인 셈이다. 이처럼 계모와 의붓자식 간에 흔히 발생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의 뒤엉킴과 반목에 더해, 수홍의 딸뻘인 추이샤의 ‘젊음’은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만든다.

추이샤의 젊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주이치로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들었다. 추이샤가 곧 월하미인이 될 것 같다는 수홍의 말을 전하기 위해 주이치로를 찾았다가, 주이치로가 무심코 뺨은 뜻밖의 말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당혹스러워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모친의 아름다움을 상찬한, 친모자 간이였다면 흐뭇한 장면이었을 이 상황은 젊은 계모와 의붓아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전개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내 주이치로는 친어머니인 사요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사요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과 말을 했던 일을 생각해내고 모든 일을 덮어버린다. 그러나 추이샤는 그날 밤 이후 “스물다섯이라는 자신의 나이를 처음으로 직시하게 되었다.” 그녀는 수홍과 주이치로가 개성명(改姓名), 흥아(興亞), 팔굉일우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삼천 년 역사, 시대의 사명, 공동체의 운명을 운운할 때, 흘러보낸 청춘과 수홍 사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남성의 거대서사와 여성의 미시서사가 시각적으로 교차한다.

“아버지, 그거 아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개명 허가가 내려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대요.”

— www.kci.go.kr

35 「鄭一家」, p. 38.

[...]

그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자신의 행동이 아이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바뀌고, 정가 사람들에게 발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른다고, 추이샤의 총명함은 예감하고 있었다. [...] 수홍이 죽는다면, 그녀는 정가를 떠나 홀로 삶을 시작하리라 각오하고 있었다.

[...]

새하얀 월하미인이, 열게 푸른 달빛 속에서 은은히 피어났던 그 밤의 몽환적인 공기가, 그녀의 가슴 속에— 흘러보낸 자신의 청춘을 향한 몸부림 치듯 간절한 동경을 꽃피우게 한 것이었다.

[...]

“맞아요. 거대한 전쟁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는 시기잖아요. 작은 생각에 매달려 웅졸하게 안달복달하고 있어 봤자, ‘흥아(興亞)’라는 큰 일은 해낼 수 없으니까요.”

추이샤의 생각은 단순히 젊은 후처의 비애이거나 가정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여성적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고민과 동요는 현재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온몸으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생생한 삶 자체이다. 여기에서 추이샤는 개성명·흥아·팔굉일우를 위해 호명되는 피식민자라는 집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즐거움과 슬픔을 느끼고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고유한 인격체이다. 그녀의 욕망은 거대하고 진지하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남성의 서사에 간단히 동화되지 않는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온몸으로 영위하는 여성의 서사는 ‘위대한’ 대의와 신념을 에두르며 오롯이 흐른다. 그러므로 “수홍의 이야기는,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추이샤는 수홍과의 결혼부터 미출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이 스스로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수홍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집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자

신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에 오히려 혐오감을 느낀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녀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않음으로써 가문의 평온을 유지하려 한 개인적인 선택은 전시 총동원체제 아래 국가가 여성에게 강요한 황군(皇軍) 생산을 위한 모성의 의무를 사적 영역 내부에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추이사에게 국가의 거대서사에 정면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의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안위와 일상의 평온에 집중할 뿐이다. 그녀의 미출산은 정씨 가문에서의 복잡한 처지를 고려한 지극히 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을 제국이라는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하려던 전시 체제하에서, 그녀의 무관심과 보신주의는 ‘묘한’ 효과를 발휘한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세계로 침잠하는 그녀의 선택은 뜻밖에도 거대서사에 함몰되지 않는 단단한 방어기제가 된다. 그녀가 타이베이로 돌아와 살림도구들을 보며 느끼는 안도는 거대 담론이 장악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의 고수를 의미한다. 비록 추이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개인의 영역에 단단히 붙들어 댄으로써 정씨 일가의 황민화 서사가 완성되는 것을 내부에서 지연시키고 차단하게 된다.

추이사는 언뜻 모순적인 인물처럼 비춰진다. 젊은 지식인 여성으로 구습에 냉소적이고 민감하지만, 스무 살의 나이 차가 있는 남자의 후처가 되면서 가부장적인 봉건체제에 ‘자발적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녀는 모든 순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의식을 잃지 않는다. 작품은 첫장과 마지막 장에서 추이사의 시선에 기대어 상황을 바라보게 한다. 정착오의 화려하고 성대한 본도식 장례 행렬에서 누구보다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이가 추이사이다. 그녀는 유교식 예법에서 시작된 장례가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든 음양가와 풍수사의 영향으로 특수한 세속적 형식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과연 고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그렇다고 그녀의 시각이 내지화를 주장하는 수홍이나 주이치

로의 입장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추이샤는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면서 본래 의미가 훼손될뿐더러 의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하는 허례허식을 분명하게 겨냥하고 있다. 일견 표면적으로는 추이샤와 수홍 부자의 입장이 동일하게 보이지만, 그녀는 본도식 장례의 대안으로 내지식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녀의 냉소는 구습의 맹목성을 향해 있다.

한편 추이샤의 진술에 기대면 그녀는 스스로 봉건적인 대가족제도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여느 소설들에서 엘리트 신여성들이 상황적 강요에 떠밀려 후처가 되고 봉건적인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비극적 운명에 휘말리는 서사화 방식과는 상이하다. 1940년대 태평양으로 전장이 확장되면서 일제는 전쟁 최전방을 지원하는 후방이라는 의미의 총후(銃後) 담론을 전개하며 여성들에게 총후의 어머니, 현모양처로서 가정 수호를 강요했다.³⁶ 그리고 이는 대만 전통의 봉건적 가부장제와 절묘하게 결합했다. 사카구치 레이코 역시 엘리트 신여성인 추이샤를 황민화에 열성인 정씨 집안으로 들임으로써 제국의 총후 담론에 부응하고 있다. 하지만 가부장적 국가권력이 가하는 억압에 대한 작가의 본능적인 피로감과 거부감은 국책을 대변하는 총후의 가정을 마냥 아름답게 서술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추이샤의 가정은 제국의 영광이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 아니다. 정씨 집안에서 추이샤는 자신의 아이도 없이 일본인 전처가 낳은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청춘을 흘려보내고 있다. 여기서 추이샤의 미출산이라는 선택은 징후적 공백이 된다. 국가가 사적 영역까지 침투해 모성을 동원하려 할 때, 추이샤의 ‘불모성’은 제국의 재생산 회로를 내부에서 균열시킨다. 국가의 뜻에 순응하여 가정인으로 복귀한 모범적 여성인 추이샤를 다루면서, 이 소설의 서사는 가정으로 물러난 엘리트 신여성의 허무함과 불모성을 은폐하는 데 실패한다. 이처럼 가정을 선택한 신여성에게 남겨진 불모성은 정씨 일가의 황민화 서사가 완성

— www.kci.go.kr
36 권명아(2004), 「총후 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상허학회』 12호, pp.257-258.

불가능한 가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백이라는 자리를 통해 징후적으로 드러낸다.

3. 결론

본고는 사카구치 레이코의 소설 「정씨 일가」를 식민지 권력 담론과 성정치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서사적 균열의 기록으로 재조명하고자 했다. 그간의 선행연구가 해당 작품을 사실주의적 재현 혹은 황민화 정책에 대한 협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내에서 이해해왔다면, 본고는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비논리적 도약과 서사의 잉여들이 오히려 식민지 현실의 복잡한 모순을 증언하고 있음을 포착하는 데 집중했다. 곧 제국의 황민화 기획이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과 충돌하며 어떻게 서사적 균열을 일으키는지 보이려고 하였다.

정씨 일가의 세 여성-위(玉), 사요, 추이사-는 각기 다른 세대와 배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제국의 거대한 위계질서 아래 위치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은 ‘아내’로서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속적인 위치에 종속되며, 텍스트 안에서 여성 인물들 간의 상호적 관계는 비어 있다. 그러나 연대하지 못하고 고립된 이들의 개별 서사는 역설적으로 각각 제국의 ‘황민 되기’ 기획에 매끄럽게 봉합되지 않는 균열 지점들을 형성한다. 먼저 위(玉)는 상징적 세계관을 고수하며 제국의 진보적·선형적 시간관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녀는 합리와 과학을 앞세운 제국의 근대적 통치담론이 결코 승인하지 않는 민간신앙과 순환적 세계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의 애도는 제국이 규정한 전근대적 미신으로 치부돼 부정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잉여의 공간이야말로 제국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식민화하지 못한 대만의 고유한 내면적 영토가 된다.

다음으로 사요는 우울과 침묵을 통한 존재의 공동화와 소외를 보여준

다. 그녀는 내대통혼이라는 제국의 생명정치적 기획 아래 일본인 어머니로 소환되었으나, 정작 그녀의 내면서사는 소설의 이야기 안에서 철저히 소거되어 있다. 그녀의 심약함과 고립은 제국이 선전하던 이상적인 일본인의 강인함이 식민지 가정 안에서 얼마나 공허하게 부서지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면서, 화려한 성공 서사 뒤에 가려진 비극적 실체를 드러낸다. 반면 추이사는 사적 영역을 고수하며 황민의 재생산을 미실행함으로써 제국 서사의 완성을 유예한다. 그녀는 제국이 요구하는 황군을 재생산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부응하지 않는다. 또한 그림으로써 국가 중심의 거대 서사를 자신의 일상적 공간 밖으로 밀어낸다. 그녀의 보신주의와 안도는 제국이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카구치 레이코의 텍스트에서 포착되는 이들의 목소리와 침묵은 작가의 의도적인 저항이라기보다, 제국 가부장제라는 기획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불완전성을 노출하는 지점들이다. 남성들의 서사가 팔굉일우라는 추상적인 대의를 향해 일괄 수렴될 때, 여성들의 서사는 그 틈새에 덧붙여진 나머지로 남음으로써 제국 서사의 완결성을 방해하고 그 기만성을 폭로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정씨 일가」는 국어가정, 내대통혼, 황민화라는 국책 협력의 외피를 뚫고, 전시체제의 내재적 모순이 비어져 나온 징후적 텍스트이다. 일제의 총동원 담론의 가부장적 국가주의가 여성의 일상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이질감과 부조화는 군더더기와 공백으로 서사에 흔적을 남겼다. 작가의 여성적 시선이 머무르는 자리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라는 견고한 이데올로기적 체계 안에서 서사가 매끄럽게 봉합되는 것을 저지하고 만다.

본고는 그간 식민지기 대만문학 연구에서 사카구치 레이코의 작품을 일제의 국책에 동조한 협력문학 혹은 현실을 가감 없이 그려낸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이분법적 틀 내에서만 전유해왔던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학술적 모색이다. 「정씨 일가」가 보여주는 서사의 균열은 제국의 황민화 기획이 지닌 과시증적 폭력성이 개인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전체로 포섭해낼

수는 없었음을 드러낸다. 특히 식민모국 출신이자 여성이라는 사카구치의 ‘횡단적’ 위치성은 지배자의 도식화된 언어 내부에서 오히려 지배 담론의 허구성을 노출하는 독특한 비평적 공간을 창출해냈다. 따라서 「정씨 일가」에 나타난 여성 3대의 잉여와 공백을 읽어내는 작업은 단지 한 일본인 여성 작가의 문학적 한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제국의 거대서사가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과 여성의 신체를 식민화하려 할 때, 문학이 어떻게 그 틈새에서 균열의 파장을 보존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본고는 사카구치 레이코의 텍스트가 지닌 이 불온한 징후들을 복원함으로써, 전쟁총동원 시기의 식민지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층화하고 젠더 정치학을 통한 식민지 담론 분석의 지평을 확장해보고자 했다.

참고문헌

자료

中島利郎(2008), 『日本統治期日本人作家作品集』第5卷, 綠蔭書房.

논저

H. 포터 애벗(2010),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하라타미 유미(2008), 엄경화 옮김, 『여성 표현의 일본 근대사』, 소명출판.

권명아(2004), 「총후 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상허학회』 12호.

김옥(2026), 「‘황민’(皇民)으로의 길에 놓인 억압된 타자들: 전시하 대만인 일본어소설 「길」(道)과 「격류」(奔流)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34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손준식·이성찬(2024), 「일기를 통해 본 일제 식민지시기 ‘대만의식’의 생성과 변화」, 『역사학연구』 제63집, 중앙대학교 역사연구소.

임희록(2022), 「전쟁, 그리고 식민 조선의 일본인 여성」,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1집 (9월).

최말순(2024), 「‘強權과 黃金의 세계’에서 살아남기:대만근대소설 속의 저항과 탈식민 전망」, 『대만연구』 제2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호미 바바(2002), 「제4장 모방과 인간」,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林慧君(2006), 「坂口禰子小說人物的身分認同: 以〈鄭一家〉, 〈時計草〉為中心」, 『台灣文學

- 『學報』第8期(6월).
- 林慧君(2007), 「殖民帝國女性之眼: 論坂口禰子小說中的台灣女性形象」, 『中外文學』第36卷 第1期(3월).
- 武久康高(2008), 「超越尺度的方法: 皇民文學與坂口禰子的〈杜秋泉〉, 〈鄭一家〉」, 吳佩珍譯, 『台灣文學學報』第12期(6월).
- 白春燕(2020), 「文學跨域: 日治時期在台日本人作家保坂瀧雄研究」, 『文史臺灣學報』14期(10월).
- 小笠原 淳(2015), 「坂口禰子の台湾蕃地小説とその系譜: 戦中と戦後を通して」, 『日本台湾学会報』第17号(9월).
- 楊逵(1942), 「臺灣文學問答」, 『臺灣文學』2.3.

원고 접수일: 2026년 4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5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6년 5월 12일

ABSTRACT

Female Narratives and Ruptures in the Komin (Imperialization) Project

Shin, Min Young*

Focusing on Sakaguchi Reiko's
"The Cheng Family" (1941)

This study re-examines Sakaguchi Reiko's novel "The Cheng (Zheng in pinyin) Family", a work centered on a three-generation imperialization (Kōminka) project, as a record of narrative fissures occurring at the nexus of colonial power discourse and gender politics. By focusing on the illogical leaps and narrative surpluses within the text,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e ruptures caused when the empire's imperialization project collides with the lived experiences of women.

The stories of the three women in the Cheng family — Yu, Sayo, and Cuixia — intervene disruptively in the rigid imperialization narrative constructed by three generations of men, creating cracks in its foundation. Yu adheres to a symbolic worldview, refusing to comply with the empire's progressive and linear concept of time. Although her mourning is dismissed as pre-modern superstition, this space of surplus paradoxically becomes an internal territory of Taiwan that the empire fails to fully occupy.

—

www.kci.go.kr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Humanities, Yonsei University

Sayo, the Japanese wife, demonstrates the hollowing out of existence and alienation through her depression and silence; her isolation serves as a stark indicator of the bankruptcy of imperial ideology. Meanwhile, Cuixia delays the completion of the imperial narrative by adhering to the private sphere and rejecting reproduction. Her self-preservation proves that the imperial attempt to exert total control over an individual's life is inevitably bound for failure.

Crucially, the voices and silences of these women do not stem from intentional resistance by the author. Instead, they are symptomatic fissures that leak out from the gaps in the text — a result of the fundamental incompleteness inherent in the patriarchal imperialist project itself. While the male narratives converge toward the abstract ideal of Hakkō Ichiu (Eight Corners of the World Under One Roof), the female narratives remain as remainders in the gaps. In doing so, they function as powerful narrative devices that obstruct the completeness of the imperial discourse and expose its underlying deceptiveness.

Keywords Sakaguchi Reiko, “The Cheng Family”, Narrative Surplus, Female Narratives, Imperialization (Kōminka) Project, Narrative Fissures